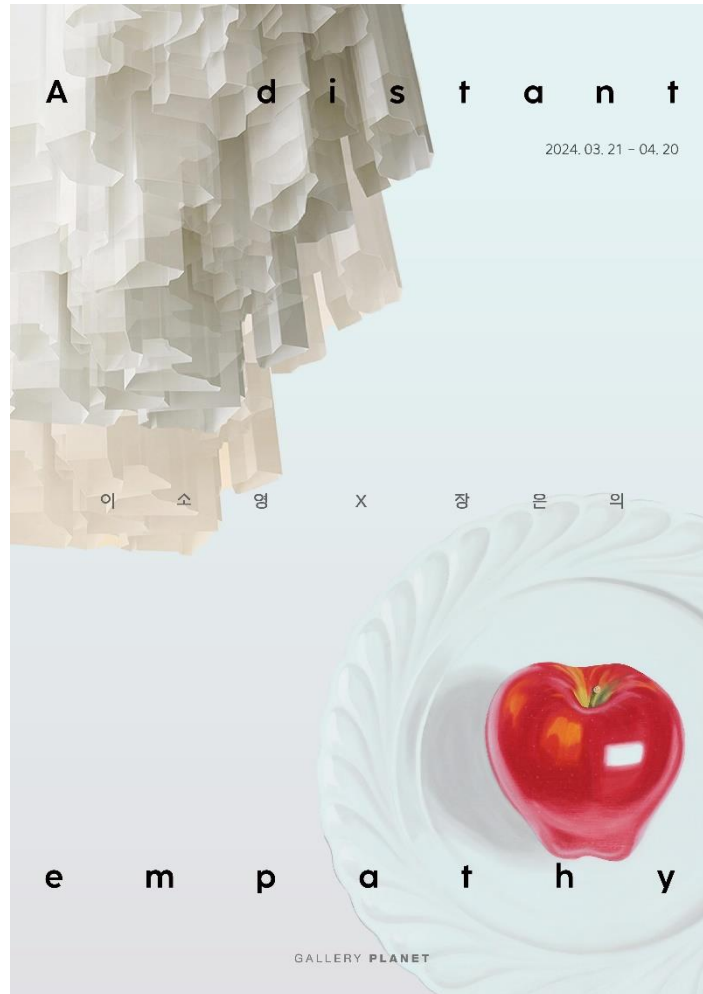


Press Release



전시명 A distant empathy
 이소영 & 장은의 작가 2인전
전시일정 2024. 03. 21(Thu) – 2024. 04. 20(Sat)
관람시간 월-금 10am – 6pm / 토 10am – 5pm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71길 14 2F 갤러리 플래닛
 www.galleryplanet.co.kr
전시문의 info@galleryplanet.co.kr | T. 02 540 4853

갤러리 플래닛은 오는 2024년 3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이소영·장은의'의 2인전 <A distant empathy>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 <A distant empathy>에서는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 또는 소통이 생성되는 지점과 그 특성에 따른 예술적 문답과 사유에 지속해 온 두 작가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조형 언어로 기록하는 '현재의 대화'를 선보입니다.

이소영은 이쪽 면과 맞닿은 면을 '구분'하거나, 또는 두 면을 '접속'시키는 양가적 특성을 내포한 개념으로서의 '경계'에 대한 복합적 탐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드러난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음각의 영역이었던 '경로(이동을 위한 통로)'로 연결, 확장되어 물리적·개념적 밀도를 심화 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작가는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에 놓인 통로 개념의 길을 주제로 작업하였다. 통로는 멈추지 않고 이동하는 장소이며, 끊임없이 경로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갈등하는 주체적인 행위와 사고가 일어나는 분주한 장소이다. 작가는 이것을 확정되지 않았으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경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인 합정동과 갈현동의 지도를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기억을 평면과 입체로 표현한 작품과 보광동의 미로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경험을 소재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한다.

장은의의 작업은 시간의 표면에 가리워졌던 어떤 '틈'을 찾아냄으로써 전개되는 '관계의 특이성'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되며, 점차 화면의 추상성·상징성을 더욱 가속화하며 사유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작가의 그림은 대부분 사물이나 풍경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정물화나 풍경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물화 혹은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두 개의 원"이라는 제목으로 나타나는 시리즈에서, 하나의 원은 과일이나 열매가 가진 동그라미를, 다른 하나의 원은 접시나 잔이 가진 동그라미를 가리킨다. 자연물이 드러내는 동그라미의 형태는 통통하거나 울퉁불퉁한 모습이고, 인공물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이데아적인 형태를 구현한다. 각각은 자연의 세계와 인공의 세계에 속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 장면은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서로 다름에 이유를 묻지 않고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 장면을 낯설게 느꼈고,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여겨져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두 작가의 예술적 시선은 일면 상이하면서도, 가변성 또는 생장 가능성을 내포한 '사이공간-거리'의 보유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조형적 교차점을 형성하고 있다. '보이는 이미지'와 '보이지 않는 이미지' 사이에서의 예술적 사유는 이소영·장은의 작가가 풀어낼 '공감'과 '이해'를 위한 조형적 스토리텔링에 디테일을 더하며 <A distant empathy>의 대화에 참여할 모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취재 문의

갤러리 플래닛 info@galleryplanet.co.kr | 02 540 4853

이소영 (한국, 1968년생)

학력

- 1991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
- 1998 독일 뉘른베르크 조형예술 대학교 졸업 | 마이스터 실러 by Prof.J.P.Hölziger

주요 개인전

- 2022 경계의 형태, 메타□, 서울
- 2022 경계지, 수애노339 갤러리, 서울
- 2020 경로의 단서들, 히든엠 갤러리, 서울
- 2019 인공적 균형, 아트스페이스 플라스크, 서울
- 2017 내부를 통과하기, 갤러리 룩스, 서울
- 2016 Making a Void_사루비아다방 SO.S,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서울
- 2013 통로로서의 계단, 갤러리 가비, 서울
- 2010 Mystery Art Museum, 갤러리 그림손, 서울
- 2009 Studio in Studio, 웨이방 갤러리, 서울
- 2007 영은미술관 릴레이전-이소영-, 영은 미술관, 광주
- 2007 주관적인 집,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 2006 방위 없는 도서관, 효형 출판사, 파주
- 2001 이면으로의 여행, 갤러리 사간, 서울

주요 단체전

- 2023 그, 사이 inter Space, K-UM 갤러리, 서울
- 2019 미술관은 내용이다, 환기 미술관, 서울
- 2019 낮선 시간의 산책자, 뮤지엄 산, 원주
- 2017 Bubble, 갤러리 담담, 베를린
- 2016 Timeless, 환기 미술관, 서울
- 2015 Blue, Salon de h, 서울
- 2015 Momentum, 토탈 미술관, 서울
- 2014 시시각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1 한국조각다시보기, 소마 미술관, 서울
- 2011 서울사진축제-실제의 우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1 지역네트워크-비밀-, 아르코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 2011 신진기예, 토탈 미술관, 서울
- 2010 Super Message of art,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수상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11 Art Omi | NY
- 2006 영은 미술관 경안창작스튜디오
- 2007 송은미술대전 장려상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영은미술관, 송은문화재단, 하나은행, 녹십자

장은의 (한국, 1974년생)

학력

- 1997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2005 독일 함부르크 국립 조형 예술학교 자유예술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23 Circling approach, 아트스페이스 플라스크, 서울
- 2021 Circling approach, 갤러리 암 슈바르첸 메어, 독일
- 2019 여름, 사과가 떨어질 때, 하우스 데어 쿤스트 에니거, 독일
- 2019 A Plate: 나와 다른 당신에게 건네는, 디스위켄드룸, 서울
- 2018 두 개의 원: 서로 다른 세계가 공존하는 어떤 방법, 하우스 데어 쿤스트 에니거, 독일
- 2017 두 개의 원, 창성동 실험실, 서울
- 2015 부재의 감각, 갤러리 플래닛, 서울
- 2014 사소한 환상, 갤러리 조선, 서울

주요 단체전

- 2023 과일동산, 놀러오세요, 신세계갤러리, 부산
미술관에 피는 꽃, 서면미술관, 부산
- 2022 +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Still Leben, 오셋별-장은의 2인전, 오래된 집, 서울
컬러풀 세컨즈, 창성동실험실, 서울
- 2021 YMCA+YWCA, 갤러리 이마주, 서울
신소장품전,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 2020 Fair Play, 디스위켄드룸, 서울
여행 같까요, 뚝섬 미술관, 서울
- 2019 성남의 얼굴전: 집,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 2018 겨울전, 하우스 데어 쿤스트 에니거, 에니거, 독일
- 2017 장욱진, 예술혼을 건다, 장욱진 미술관, 양주
요하네스 올리히 쿠비악-장은의 2인전, 퀸스틀러하우스 임 슈로쓰가르텐 쿡스하펜, 독일
- 2016 공교롭게도 회화, 임영주-장은의 2인전, 갤러리 플래닛, 서울
아미의 작가들, 아미 미술관, 당진
- 2015 나는 무명 작가다, 아르코 아트센터, 서울
- 2014 Affinity 90, 갤러리 조선, 서울
누구나 사연은 있다, 경기도 미술관, 안산
현대 미술 경향 읽기, 아미 미술관, 당진

레지던시 프로그램

영은미술관, 캠퍼운데이션 명료동작업실, 퀸스틀러하우스 브레멘, 화이트블럭 천안 창작촌, 하우스 데어 쿤스트 에니거, 팔복예술공장, 퀸스틀러하우스 임 슈로쓰 가르텐, 경기창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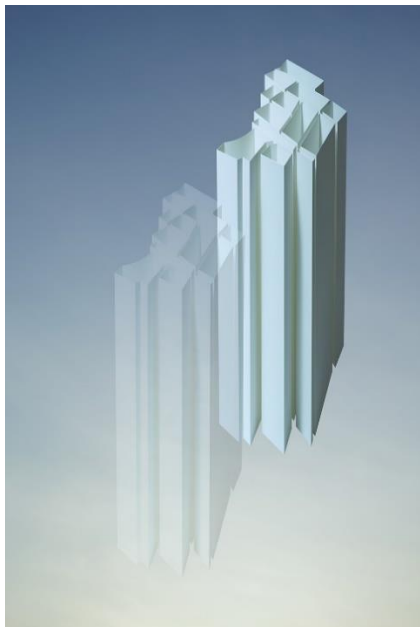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카이스트 리서치 앤 아트, 성남문화재단 성남큐브미술관, 주한 독일 문화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캠퍼운데이션, G&M 글로벌 문화재단

[전시 작품 이미지]



이소영, 경계지 분열하는 Borderland dividing
Inkjet print, 147x350cm, 2022



이소영, 경로-상승하는 Path-ascending
Inkjet print, 70x46cm, 2020



이소영, 경로-상승하는 Path-descending
Inkjet print, 203x148cm, 2020



이소영, 지도 My Map
Acryl, 291×291cm, 2020





장은의, 두 개의 원 70 (여름사과와 파란종지)
Oil on canvas, 112×162cm, 2021



장은의, 두 개의 원 71 (여름사과와 접시)
Oil on canvas, 112×162cm, 2021



장은의, 두 개의 원 84 (사과와 초록 접시)
Oil on canvas, 60×80cm, 2021



장은의, 두 개의 원 97 (사과와 조각이 있는 접시)
Oil on canvas, 112×162cm, 2022